

# 리틀 태극전사들 16강이 보인다

### U-20 월드컵, 포르투갈전 2대2... 내일 밤 나이지리아전 비겨도 진출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이 2013 국제 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16강 진출을 눈앞에 뒀다.

이광중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25일(이하 한국시간) 터키 카이세리의 카디르 하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리그 B조 2차전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2-2로 비겼다. 포르투갈 같은 2011년 콜롬비아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준우승한 유럽의 강호다.

쿠바와의 1차전에서 2-1로 이긴 한국은 1승1무(승점 4·골득실 +1·4골3실)를 기록, 나란히 1승1무를 기록한 포르투갈(승점 4·골득실 +1·5골4실)과 동률을 이뤘지만 다득점에서 한 골이 뒤져 2위에 올랐다.

이로써 한국은 27일 밤 11시 나이지리아(1승1패)와의 3차전에서 비기거나 해도 최소 조 2위를 확보해 16강에 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이집트 대회 8강, 2011년 콜롬비아 대회 16강에 오른 한국은 3회 연속 16강 가능성을 한껏 높였다.

이 대회는 6개 조에서 각 조 상위 2개 나라가 16강에 오르고 조 3위 국가 가운데 성적이 좋은 상위 4개국이 16강에 합류한다. '어린 태극전사'들은 두 경기 모두 선제골을 얻어맞고도 승점을 따는 저력을 발휘, 3회 연속 토너먼트 진출에 바짝 다가섰다. 한국은 2009년 대회 8강, 2011년에는 16강에 진출했다. 이날 한국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코너킥 상황에서 키 188cm의 장신 알라제(아프리카)에게 선제골을 허용했다.

한국은 전반 31분 류승우(중앙대)의 슈팅이 골대 옆 그물을 맞으면서 공격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강상우(경희대)가 오른쪽 측면에서 페널티지역 밖에서 기다리던 류승우에게 살짝 빼준 공을 류승우가 오른쪽발로 강하게 찼지만 골대 옆 그물을 흔들었다. 하지만 이 슈팅을 신호탄으로 한국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불을 뿜었다.

동점골이 터진 것은 전반 45분이었다. 골키퍼 이창근(부산)의 골키퍼 한 번에 공격진영으로 넘어왔고, 이를 류승우가 받아 상대 수비수 한 명을 제친 뒤 오른쪽 중거리 포로 포르투갈 골문을 확실히 열었다. 쿠바와의 1차전에서 역전 결승골을 터뜨린 류승우는 두 경기 연속 득점을 올렸다.

브루마는 이날 경기내내 활발한 몸놀림으로 한국 문전을 위협하다가 후반 15분 왼쪽 중거리 슈팅으로 2-1을 만들었다. 한국은 그러나 후반 31분 김현이 거어어 동점골을 터뜨리며 소중한 승점 1을 따냈다. 왼쪽 측면에서 심상민(중앙대)과 한성규(광운대)가 패스를 주고받으며 기회를 만들었고, 심상민이 상대 골키퍼까지 제쳐내며 원발로 정면에서 기다리던 김현에게 절묘한 패스를 연결했다.

불과 2분 전에 비슷한 장면에서 날린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혔던 김현은 이번에는 골키퍼가 자리를 비운 포르투갈 골문을 향해 통렬한 동점골을 터뜨렸다.

이광중 감독은 "나이지리아도 포르투갈처럼 선수 개인능력이 뛰어나지만 약점이 있다. 좋은 경기를 펼쳐 조 2위 이상으로 16강에 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연합뉴스



25일(한국시간) 터키 카이세리 카디르 하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국제 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B조 2차전 한국과 포르투갈 경기에서 전반 45분 류승우가 동점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호랑이 질주 막는 장맛비 “야속하네”

### 휴식기 이어 두산전 우천 취소 컨디션 차질

### 투수들 로테이션도 변화... 오늘 김진우 낙점

‘호랑이 군단’의 질주를 막는 야속한 비가 내렸다.

25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시즌 7차전이 우천으로 취소됐다. 주말 휴식기를 보냈던 KIA는 경기장을 촉촉하게 적신 비에 다시 또 휴업에 들어갔다. 26일 정상적으로 경기가 진행된다면 6일 만의 경기가 되는 셈이다.

휴식기와 겹친 비는 KIA에게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볼넷 타격을 선보였던 야수진이 길어진 휴가에 타격감이 식을까 우려하고 있고, 선발 로테이션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KIA는 21일 휴식을 취한 뒤 경기 감각 유지를 위해 22-23일 훈련을 하며 휴식기 일정을 보냈다. 하지만 오후 훈련 시간에 맞춰 비가 내리면서 '빛속의 훈련'이 진행됐다. 완벽하게 훈련을 소화하지 못한 만큼 야수진은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다.

물 오른 양현종은 두산·삼성 전에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틀어졌다. 정상적인 로테이션이었다면 양현종은 25일 두산전, 30일 삼성전에 등판할 예정이었다.

양현종은 휴식기를 앞두고 열린 지난 20일 한화전에서 윤석민에 이어 6회에 마운드에 올라 2.2이닝을 책임졌다. 양현종이 불펜으로 등판을 소화했지만 김진우는 16일 이후 마운드를 밟지 못했다.

26일 등판까지 미뤄진다면 김진우의 컨디션 조절이 문제가 되는 만큼 선발 로테이션에 변화가 불가피했다. 양현종은 27일 소사에 이어 28일 삼성과의 경기에 출격할 방침이다.

선발 로테이션에 재변화를 준 선 감독은 마운드 정상화를 위한 '송은범 살리기'에도 나섰다. 우천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주중 두산과의 경기에 송은범을 투입하지 않을 생각이다.

선 감독은 “휴식기 동안 100개의 라이브

피칭을 하게 했다. 심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밸런스가 안 맞는 게 문제. 팀에 와서 훈련량도 많이 늘었고, 팀 연습 중에도 여유있게 이기는 경기가 없어서 부담이 많은 상황에서 등판을 했다”며 “(송)은범이가 8회를 해 주면 엔서니도 편하게 9회를 던질 수 있다. 시간을 주면서 여유있는 상황에 내보낼 계획이다. 두산전에는 열의를 시켜줬다”고 밝혔다.

한편 비때문에 빠름과 느낌으로 대조를 이루는 두 좌완, KIA 양현종과 두산 유희관의 맞대결은 무산됐다. 대신 26일 무등경기장에서는 '폭포수 커브' 김진우와 '슬로우 커브' 유희관의 커브 대결이 펼쳐지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끌 사령탑으로 선임된 홍명보 감독이 25일 파주 NFC(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형 전술로 월드컵 본선 도전”

### 홍명보 대표팀 감독 기자회견

### “쉽지않은 환경이지만 모든 것을 걸겠다”

홍명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은 25일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내 모든 것을 걸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홍 감독은 이날 경기 파주 NFC(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경험으로 쌓은 지식, 지혜를 활용해 몸과 마음을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 불사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서 한국 대표팀을 지휘할 사령탑으로 전날 선임됐다.

홍 감독은 다음달 20일 국내에서 개막하는 동아시아컵 대회에서 대표팀 감독으로서 첫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한국은 올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을 통과해 8회 연속 본선 진출을 이뤘으나 부진한 경기 내용 탓에 본선을 앞두고 우려를 낳았다.

홍 감독은 선수 구성과 관련해서는 원칙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9년 20세 이하 월드컵,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함께한 ‘홍명보의

### 홍명보 감독 연혁

- 출생일 1969년 02월 12일
- 신장 192cm / 72kg
- 주요경력
  -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국가대표
  - 1994년 미국 월드컵 국가대표
  -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국가대표
  - 2002년 한일 월드컵 국가대표
  - 2002년 FIFA 선수분과위원회 위원장
  - 2002년 대한축구협회 이사장
  - 2005~2008년 국가대표팀 감독
  - 2009년 U-20 월드컵 축구대표팀 감독
  - 2009~2012년 대한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
  - 2009년 2010광저우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감독
  - 2012년 제30회 런던올림픽 총감독

아이들’도 대표팀에 승선하려면 검증은 먼저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감독은 “그 선수들과 3년 정도 환상적인 시간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면서 “1년 전, 1년 후 모든 것을 체크해 선수들을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감독은 브라질 월드컵의 구체적인 목표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한국형 전술을 만들어 한국형 플레이로 이번 월드컵에 도전하겠다”며 “우리 선수들이 가장 잘하는, 우리 선수들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전술을 개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 성적 부진 안치홍 사인볼 부탁에 “절이라도 하면서 해드려야죠”

### ① 덕아웃 말말말

- ▲절이라도 하면서 해드리고 싶은 심정이예요=안치홍, 프런트가 미안해하며 사인볼을 부탁하자, 올 시즌 성적이 좋지 않아서 사인 요청을 받는 게 오히려 고맙다며.
- ▲날 받아놓으니까 이래=발목 부상으로 지난달 30일 엔트리가 말소됐던 김상훈, 복귀 후 첫 경기를 하려는데 비가 많이 온다며.
- ▲하늘에 구멍 났네=비가 내리는 것을 본 나치완.
- ▲너무 많이 뺏었다. 다음엔 내가 줘야지=앞선 넥센과의 경기에 대해 얘기하던 선동열 감독, 악수를 하면서 엄경엽 감독에게 기증 받고 했는데 그 뒤로 넥센

의 상승세가 주춤하더라며. ▲안할 짓을 왜하나고 그랬지=선동열 감독, 어렵게 세이브를 하고 있는 엔서니가 자꾸 미안하다고 얘기한다면, ▲꼭 쉬고 내일 보심시다=양상문 해설위원, KIA 덕아웃을 찾은 두산 김진욱 감독을 향해.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류현진 호투 했지만... 7승 또 실패

### SF전 6.20이닝 8피안타 1실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맞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상대로 시즌 12번째 퀄리티스타트를 하며 호투했지만 7승 달성엔 또다시 무산됐다.

류현진은 2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 6.20이닝 동안 8피안타와 볼넷 4개를 내주고 1실점만 했다. 삼진은 두 개를 잡았다. 류현진은 1-1로 맞선 7회 2사 2루에서 로날드 벨리사리오에게 마운드를 넘겨 결국 승패 없

이 물러났다. 하지만 다저스는 류현진의 역투를 발판 삼아 8회 야시엘 푸이그의 좌전 적시타로 결승점을 올리면서 3-1로 승리, 4월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3연전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로 3연승을 거뒀다. 올 시즌 류현진의 성적은 6승 3패를 유지했고, 평균자책점은 2.96에서 2.85로 낮아졌다. 류현진은 지난달 29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홈경기에서 첫 완봉 역투로 시즌 6승째를 장식한 이후 6월 들어 네 경기

째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다. 올해 15번째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시즌 12번째이자 6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선발로 60이닝 이상 던져 3자책점 이하)를 기록했다. 그러나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6회까지 솔로 홈런을 포함한 푸이그의 2안타가 팀 안타의 전부였을 정도로 다저스타선은 상대 선발 매디슨 벅가너에게 골공 뒀다. 류현진의 다음 등판은 30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홈 경기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